

메시지 3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생활함

성경: 롬 8:2, 10, 6, 11, 28-29, 12:1-2

I. 이기는 이가 되는 열쇠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영의 법이다. 로마서 8장은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장이다 — 롬 7:24-8:2, 28-29, 시 105:4.

- A. 로마서 7장은 ‘육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체험이고, 로마서 8장은 ‘영(신성한 영이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어 이 두 영이 함께 연합되어 하나가 된 영)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체험이다 — 롬 8:4, 9-10, 16, 고전 6:17, 딤후 4:22.
- B.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리는 것은 우리를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인도한다. 이 법은 우리가 몸 안에서 몸을 위해 살 때 우리 안에서 운행한다 — 롬 8:2, 28-29, 12:1-2, 11, 빌 1:19.

II.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초점이고 우주의 중심이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체험하고 있다면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 A.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 안에 들어가시어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들을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세우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다 — 엡 1:3-5.
- B.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인데, 이는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가시어 사람의 생명과 내용이 되시고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살고 심지어 하나님을 살아 낼 때에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부터 표현되신다.
- C. 스가라서 12장 1절은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는 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라고 말한다.
 - 1. 사람의 영은 하늘들과 땅과 동일한 위치에 놓인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갈망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 엡 2:22, 비교 딤후 4:22.
 - 2. 하늘들은 땅을 위해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 D. 우주 안의 중심 초점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우주 안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 사 66:1-2, 요 14:23, 15:4.
- E.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기쁨으로 찬양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시며,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만들고 계신다 — 엡 3:14-17.
- F. 삼일 하나님은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생명의 영의 법이 되시어 ‘과학적인’ 법칙, 곧 자동적인 원칙으로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가장 큰 발견, 심지어 가장 큰 회복 중 하나이다 — 롬 8:2-3, 10-11, 34, 16.
- G. 로마서 8장 2절과 9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 내주하시는 영은 모두 생명을 주시는 복합되신 영을 가리킨다 — 비교 출 30:22-25, 빌 1:19, 고전 15:45하.

1.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과 ‘영’은 동격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영께서 하나이심을 가리킨다 — 롬 8:9.
 2.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과 ‘생명의 영’이라는 표현은 그 영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부활시키시는 분이시며 생명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삼일 하나님의 셋 모두가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 롬 8:9, 11, 2.
 3. 로마서 8장에서 그 영은, 우리에게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과 도달하심과 적용이 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다.
 4. 삼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함으로써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용기(容器)이다 — 고후 4:7.
- H. 우리가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시어 하나님의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헬라어로 ‘조에’)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 안으로 분배하신다. 우리는 모두 적어도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인 우리의 영이 조에라는 위대한 계시를 보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의 혼을 대표하는 우리의 생각은 조에가 된다. 또한 생명의 영의 법의 운행을 통해 조에는 우리의 죽을 몸 안으로 분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 부분으로 된 우리 전 존재에서 조에의 사람들이 되어, 조에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 계 21:6, 22:1-2, 14.
- I. 궁극적으로, 이 생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게 할 것이고, 이것에 의해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다음 시대로 안내하실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과 우주의 중심 초점이 로마서 8장에 있다.

III. 로마서 8장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믿는 이들의 생활을 위해 믿는 이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는 것이다 — 롬 8:2, 10, 6, 11, 28-29.

- A.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전기에 비유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신성한 ‘전기’의 법으로 운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법의 ‘스위치를 켜는’ 협력을 해야 한다 — 골 4:2, 엡 6:17-18, 살전 5:17, 비교 마 24:27(각주 1의 마지막 두 문장 참조).
- B.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계속 접촉하는 동안,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힘들이지 않고 작용한다 — 히 11:1, 5-6, 고후 4:13, 마 8:3, 15, 9:20-21, 29, 14:36, 17:7, 20:34, 요 4:23-24, 빌 2:12-13, 롬 8:2, 4, 6, 13-16, 23, 살전 5:16-18.
- C.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접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흡수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흡수할수록 우리의 빛과 구원이신 하나님을 더 누릴 것이다 — 왕하 19:30, 사 37:31, 마 6:6, 시 119:15.
 1.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말한다. 다윗은 아름다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접촉하고 흡수했다(시 27:4). 이처럼 다윗은 내적으로 빛 비춤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2. “내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송이 있다(영한 동변 찬송가 1048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724장)).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며,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 — 골 2:6-7상.

3.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께 나아가갈 때 우리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그분 앞에 올려놓고,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그분께 말씀드려야 한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혼동되고 슬프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내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
4. 우리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흡수함으로써,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고, 그분의 달콤함을 맛보며, 빛과 능력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적으로 평화롭고 밝고 강하고 능력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중에도 그분께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공과를 배우게 될 것이다 — 뵤전 4:10-11, 고후 2:17, 13:3.

D. 기도의 의미는 또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사모할 뿐 아니라,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기’를 사모한다고 말한다. 여쭙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 말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표현이 된다.

1. 참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여 다시 들려드리는 것이다.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 제 마음으로 주님께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시 27:8)
2. 우리가 하나님을 실지로 만지고 접촉하고 흡수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내적인 말씀하심에 따라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흡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표현한다 — 요 15:7.
3. 우리의 기도의 첫째 방면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바르시면서 일에 대한 그분의 부담을 주시고 그분의 의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그런 다음 우리의 기도의 둘째 방면은 일에 대한 주님의 뜻과 부담에 관해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께 여쭙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동역하여 기도의 목적을 수행한다 — 사 62:6-7, 45:11, 겔 22:30, 단 9:2-4, 삼상 12:23, 고전 3:9, 고후 6:1상.
4. 여쭙는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다윗은 자주 여호와께 여쭙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았다(삼상 22:10, 23:2, 4, 30:8, 삼하 2:1, 5:19, 23). 하나님께서 신언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신 후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 앉아’(삼하 7:18)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25하절)라고 말씀드렸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이 좋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릴 마음을 품었습니다.”(27절)라고 주님께 말씀드렸다.

E. 주님과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 대화함으로써, 생명의 영의 법이신 내주하시고, 설치되어 계시고, 자동적이시고, 내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 롬 10:12-13, 창 13:18, 살전 5:17, 엡 6:17-18, 빌 4:5-7, 12-13, 시 62:7-8.

IV. 우리가 영의 내적 감각에 주의할 때,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발견된다. 이 말씀은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영적 체험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다 —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 A. 생각을 육체에 두는 것은 육체 편에 서고, 육체와 협력하며, 육체에 찬성하는 것이다.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은 영을 주의하고, 영의 편에 서며, 영과 협력하고, 영에 찬성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 말 2:15-16.
- B. 영의 내적 감각에 주의하여 생명과 평안의 내적 감각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유일한 움직임을 위해 몸의 머리이신 주님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의 복음 봉사에서 그리스도의 포로였다.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그는 자신의 바깥 환경에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안식’(고후 2:13)이 있는지의 여부에 통제받았다. 그의 존재에서 그의 영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었으며, 그는 그의 연합된 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고 움직이고 인도받았다(고전 2:15, 롬 8:16, 고전 6:17, 고후 2:12-14, 7:5-6).
- V. 궁극적으로, 내주하는 자동적인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림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사는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며, 그 목표는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여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다 — 롬 8:2, 28-29, 12:1-2, 11:36, 16:27, 빌 1:19, 비교 갈 1:15-16, 2:20, 4:19, 26-28, 31.